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개선방향 연구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Assignment of Safety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Site

이지현*

Lee, Ji Hyun

요약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Keywords : energy industry, disaster preparation, field training system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더불어 국가 기간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산업이다.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건설재해 사망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Fig. 1과 같이 최근 10년간 건설재해로 인하여 천인율(1,000명 근로자수 당 재해자수), 도수율(1백만 근로시간수 당 재해건수), 강도율(1,000 근로시간수 당 총근로손실일수)이 최근 5~6년 사이 소폭 증가되고 있어 건설안전 분야의 안전관리 기법 및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건설참여자 전원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임기준은 상시근로자수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공사금액에 근거하여 선임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종류, 난이도, 공사기간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공사금액일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수년간 이루어지는 공사와 단기간에 준공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소요인건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동일함으로 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터널 또는 교량 현장인 경우에도 안전관리자의 경력 기준은 오로지 공사금액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선임기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사금액 중심의 선임기준을 투입되는 상시근로자수와 공사 난이도를 고려한 선임기준으로 전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 본론

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자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을 통하여 자격 및 경력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기술자의 등급구분과 유사한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로 구분하되 안전관리자의 경력별 선임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인 교량공사, 터널공사, 초고층빌딩공사, 플랜트공사 등은 동일 또는 유사공사 현장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모두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발주자의 안전 관련 관심도 및 의무사항을 강화하여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공사에서 비계나 양중작업 등 위험공종에 대해 Specialist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자의 육안 점검을 통해 작업함으로써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 학생회원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박사과정 kidjigi@naver.com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점검을 위임하는 현장도 있고 소규모 현장은 정부지정 대행기관을 이용⁵⁾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대행기관 역시 소규모업체로 경력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저임금의 직원을 채용하여 형식적인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안전관리 활동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행기관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Specialist를 정부차원에서 양성하여 일정 자격을 부여하고 경력관리를 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결론

건설현장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활동의 증추적인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제도를 개선하여 안전관리자의 경력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내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현장 안전관리활동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및 형태, 공사기간별 출역인원 등 현장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및 내실있는 안전관리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 정도를 반영한 선임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Division,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Status in 2013", pp.22, 2014.
- S. H. Tae and Y. S. Kim,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between Inside and Outside Coun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17, No. 4, pp. 80-86, 2002.
- H. S. Ahn, K. J. Lee and E. J. Kim, "A Study 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struction Amount and Numbers of Workers Assessing the Required Numbers of Safety Managers", Repor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pp. 122-125, 2013.
- 4)W. M. Gal, K. S. Son, S. G. Jeong and J. N. Choi, "Improving Qualification of Safety Manager at Construction Sit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 11, No. 2, 2009.
- Y. S. Lee and Y. K. Park, "A Study on the Criteria for Appointment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9, No. 5, pp. 110-115, 2014